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사랑의 하느님

신성근 신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1-5)

한 처음부터 계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요한 1,18 ; 콜로 1,15 ; 히브1,3-4).

하지만 하느님은 풍요한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느님은 신비 속에 거처하신다(1티모 6,16 참조). 하느님은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다"(에페1,9).

1. 하느님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하느님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이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현재 우리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役事)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다.

하느님을 그저 다른 존재보다 좀 더 위대하거나 능력 있는 존재 정도로 여기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하느님의 존재란 다른 많은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역할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해명하지 못할 때나, 어떤 특수한 현상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 그 틈을 메우는 존재가 된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의 틈이나 메우고 난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느님을 모든 존재의 총체(總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모든 거룩한 것의 총체를 곧 하느님으로 알아듣는다. 따라서 하느님과 다른 존재 사이에는 전체나 부분이냐 하는 정도의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범신론(汎神論)¹⁾에 속한다.

위와 같은 몇 개의 주장들은 표현이 서로 다를 뿐, 결국은 하느님을 이 세상과 무관한 존재이거나 세상의 총체로 혼동하는 것이다.

1) 신이란 없고 그 대신 현존하는 우주 안에 나타나 있는 실재·힘들의 총합이 있을 뿐이라는 철학적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인 '만유내재신론'은 신이 비록 자기 존재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우주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범신론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식이 전체로서의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 범심론, 세계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인 비실재라고 해석하는 비우주적 범신론, 합리적인 신플라톤주의적 범신론, 직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범신론이 있다('다음 백과'에서 요약).

2. 하느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느님은 사람의 모든 체험의 전제가 되는 가치와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느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하느님의 계시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다. 즉 개방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와 인간 체험에 근거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3.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

1) 구약성경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을 알도록 계시(啓示)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시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결과는 다양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신명 6,4 참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창세 14,19-22 참조)이시며, 창조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예레 32,17 ; 이사 55,8-9 ; 시편 34,5-7 참조)이시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탈출 3,14 ; 이사 40,28 ; 애가 5,19 ; 시편 101,25-27 참조)이시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예레 23,22-23 참조)이시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탈출 19,5-6 참조),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크신 능력으로 해방하신 분(출애 3,8 참조)이시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시는 분(탈출 4,22 참조), 가나안 땅을 주시고(여호 1,11 참조) 왕국을 세우게 하신 분(1사무 7,8-16 참조)이시다.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분(1열왕 17,13 참조)이시며,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

2) 신약성경

하느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실 약속까지 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갈라 4,4 참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수하셨다(요한 14,10 ; 에페 1,20 참조). 그리고 당신 아드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셨다(사도 2,33 ; 요한 7,39 참조).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마태 6,9 ; 로마 1,7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시다(마태 15,50 ; 에페 1,5-6 참조).

4.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성경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셨다. 곧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神

秘)를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啓示)라 한다.²⁾

1) 간접적인 계시

(1) 세상 만물을 통한 계시

우리의 일상생활 중 자연에서 신비로움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자연 질서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를 깨닫게 된다. 그 절대자를 우리는 하느님이라 고백한다. 세상 만물의 질서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2) 사람의 양심을 통한 계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괴로워한다. 이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한다. 양심은 인간의 내면의 소리로는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타인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 인간의 양심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 이유는 선하신 하느님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심성에 심어주신 것이다(로마 2,14-15 참조).

2) 직접적인 계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이시고 세상 만물과 인간을 왜 만드셨으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신다.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피조물들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품고 계신 인류구원 계획을 알기를 원하신다(계시 2,6 참조).

그러시면서 하느님께서서는 직접 당신을 알리시고 구원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구약에서는 당신 친히 선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당신 계시의 완성자이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계획을 전달하시고 완성하셨다. 이는 우리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절정이요 완성이시다(히브 1,1-2 ; 요한 1,18 ; 계시 2참조).

5.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이름

1) 하느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생사화복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늘의 조화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비참한 존재임도 깨달았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을 하느님이라 불렀다.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께 피조물

2) 계시(Revelation)라는 말은 'revelum'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Re'는 '다시' 또는 '제거하다' 등의 뜻이고, 'volum'은 '휘장'이라는 뜻이다. 즉 'revelum'은 re와 volum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휘장을 제거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한자로는 '啓示'인데, 이는 '열다, 깨우치게 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계(啓)'와 '보인다'는 뜻의 '시(示)'자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계시는 어떤 사실을 일깨운다는 뜻을 갖는다.

로써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복을 주십사 청하였다.

2) 엘(El), 엘로힘(Elohim)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는 떠돌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정착한 강대한 부족이나 적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으며 살았다. 따라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 언제나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강한 존재, 누구나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하느님을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3) 야훼(Yahweh)

하느님이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실 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 주셨다(탈출 3,14 참조).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탈출 3,15)라고 말씀하셨다. '야훼'란 말의 뜻은 '나는 곧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창조하는 자이다'란 뜻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직접 보살피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말한다. 즉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느님이시다.

4) 아빠(Abba),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느님께 대한 충실과 불충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 때문에 곧잘 하느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며 엄하신 분으로만 생각했기에,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리시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방탕한 작은 아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하느님(루카 15, 11-32 참조),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루카 15,4-7)이심을 가르쳐 주신다.

5) 하느님 백성이 체험한 하느님

사람이 집회나 개인의 신심 생활에서 하느님께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나온 호칭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바위'(창세 49,24 ; 2사무 23,3 참조), '나의 바위'(시편 18,3 ; 144,2 참조)이시며, '우리의 방패'(시편 84,10 ; 89,19)이시다. 그리고 '당신 백성의 목자'(미카 7,14)이시며, '나의 목자'(시편 23,1)등으로 불린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높으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며 '나를 보시는 하느님'(창세 16,13)이시다. 이러한 호칭은 모두가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사악을 돌보시는 두려운 분'(창세 31,42.53 참조), '야곱의 강하신 분'(창세 49,24),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탈출 3,6)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느님, 우리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시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사 1,4)이시다.

이같이 하느님과 백성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름과 호칭들은 계약의 신비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완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5. 하느님은 본질에서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우리 사람은 일시적이고 결점이 있으며,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느님은 본질에서는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우리 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마태 1,23)이시다.

1) 인격적인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업적을 통해, 당신이 인격적인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그리고 당신 구원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영원한 선을 사랑할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다. 또한 구원의 업적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가르쳐 주셨다(여호 3,10 참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2)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알고 계신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장 하찮은 일까지도 알고 계시며(마태 10,30 참조), 우리 사람의 미래와 마음 속 깊은 곳도 알고 계신다(마태 24,36 참조).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과 위엄은 무한하다.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가 1,37).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을 언제나 갖추고 계시다. 하느님의 뜻이 그분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일은 결코 없다(지혜서 11,21-23 참조).

3)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며 현존하시는 하느님

불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불변성(不變性)을 계시하신다. 하느님은 본질상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변화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

오시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시편 90,1-4 참조).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만,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신다. 하느님의 영원성은 충만한 생명과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영원성은 언제나 현재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존재는 하느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하느님은 영(靈)이시며 모든 것에 현존하신다(사도행전 17,28 참조). 하느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다(시편 139,7-10 참조). 사랑이신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특별한 방법으로 현존하신다(요한 14,23 참조).

4) 초월적이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느님은 만물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만물은 하느님 말씀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사야 5,24)이시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하느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느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재판관이시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이다(집회서 1,14). 이 두려워함은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이다(집회서 2, 7-10 참조).

5) 한 분이시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지혜는 위대하고,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행복 자체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행복을 동경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었다.”(예레 31,3).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셨고, 마침내 영원한 아드님을 통하여 당신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셨다. 하느님은 무한히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이사 63,16 참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답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셨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느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느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다.

「가톨릭 교리서」는 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 6,4 ; 마르 12,29) ”최상의 존재는 단 한 분이여야 합니다. 곧 다른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 만일 하느님께서 유일하지 않으시다면 그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228항)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최초의 근원이시요 최종목적이신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고, 하느님보다 먼저 다른 무엇을 선택하거나 하느님을 다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도록 한다(229항).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 머무르신다.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230항)

우리 신앙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한“(탈출 34,6) 분이라고 알려 주셨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이다(231항)